

동성애에 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입장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 인사말

정보통신혁명을 넘어서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현대사회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인류는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구가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부작용 중의 하나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문제이다.

2001년 네덜란드가 최초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이후 23개 국가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이들을 포함한 35개 나라가 동성커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사회가 동성결혼을 인정함에 따라서 동성애자의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교회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 교단은 여러 차례 동성애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왔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동성애는 죄이다. 기독교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결혼과 가정을 존중한다. 우리 교단은 동성애자의 구원을 위해서 사

란으로 섬기지만, 동성애자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지 않는다.

우리는 다음세대를 신앙적으로 바르게 지도해야 한다. 동성애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갈수록 복잡한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동시에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배제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 인내를 가지고 이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발전시킨 신학과 지성적인 가치를 토대로 동성애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전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동성애 문제에 대한 기준을 밝히기 위하여 이 책자를 발간한다. 동성애문제를 다룬 총회 대사회문제(동성애)대책 위원들과 문서발간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한국교회가 동성애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8년 7월 2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최기학 목사

## 발간사

20세기 이후 세속화 추세에 따라서 동성애 문제가 대두되었다. 동성애는 서구 문화권에서 지배적인 풍조가 되었다. 여러 나라가 동성애를 수용하고 법제화했다. 소위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를 합쳐서 부르는 단어)운동이 활발해지면서 1989년 덴마크가 최초로 동성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했다. 네덜란드가 2001년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서 영국과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이 뒤를 따랐다. 동성커플을 인정하는 35개 국가는 유럽이나 북미대륙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프리카의 남아공이나 아시아의 중화민국까지 포함한다. 지구촌에 결혼제도의 변화가 쓰나미처럼 밀어닥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언론과 시민단체, 정치권 일각에서 동성애를 용인하는 풍조가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를 합법화한 국가들은 정신적인 혼돈과 기

독교적 가치관의 약화를 경험하고 있다. 동성애는 단순한 성적 편향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복음에 기초한 세계교회 연합운동의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한다. 동성애를 수용한 서구교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남인도 교회나 멕시코장로교회, 가나복음장로교회 등과 같이 동성애를 거부하는 제삼세계 교회들과 연대하여 세계교회의 흐름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 교단은 목사나 향존직 임직 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성경을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서약한다. 동성애는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과 가정과 어긋나는 문제이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제102회 총회(2017년)는 동성애자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는 신학교 입학을 불허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가르치는 신학교의 교직원을 조치하기로 결의하였다. 동성애자를 교단의 영적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총회는 동성애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동성애자는 변화를 위해서 사랑으로 품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도 밝혔다. 교회와 다음세대를 복음으로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성경적인 원리 위에 세우기 위하여

본서를 출판한다. 한국교회가 복음에 든든히 서고, 21세기 선교의 방향을 밝히는 유익한 결과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8년 7월 2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대사회문제(동성애)대책위원장 고만호 목사



## 동성애에 관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입장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는 지난 2014년 이래로 동성애 문제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발표해 왔다. 총회의 동성애에 관한 논의는 지난 2011년 미국장로교회(PCUSA)의 동성애자의 목사안수 허용과 2014년 동성애자의 결혼인정 결정 가운데 본격적으로 촉발되었다. 미국장로교회는 본 교단의 설립에 역사적인 역할을 한 교단이며 현재까지 동역기관으로 함께하고 있기에 이런 결정은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총회는 본 교단 소속의 전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도록 꾸준히 다루어 왔다.

- 2014년 4월 1일 ● 동성애 문제에 관한 총회장 성명서
- 2015년 5월 26일 ● 서울 광장 쿠퍼문화축제에 대한 총회장 성명서
- 2015년 8월 6일 ● 미국장로교회의 결혼 개정안에 대한 총회의 입장
- 2016년 5월 10일 ● 동성애 문제에 대한 총회장 목회서신
- 2017년 6월 12일 ● 동성애에 관한 총회의 입장
- 2017년 9월 21일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입장



이와 같은 총회의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동성애 풍조가 확산됨에 따라서 교계 일각에서 동성애 문제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논쟁으로 교회공동체가 분열과 갈등에 직면할 우려도 있다. 성소수자 인권보호의 명목으로 인한 성경적 가르침의 훼손을 염려하는 입장과 보다 폭넓은 포용의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 사이의 갈등은 각자의 정당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일치에 대한 염려를 불러일으킨다. 한편, 최근 서구교회의 점차 증가하는 동성애 수용정책에 대한 우려 가운데 한국교회 역시 동일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염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총회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성경에 근거한 동성애에 관한 이해와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하기 위해 대사회문제(동성애)대책위원회를 통해 연구를 진행해 왔다.

총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상의 기반이 하나님의 창조질서 위에 있음을 믿는다. 또한 건전한 성문화를 다루기 위한 지침은 시대정신 혹은 세상의 풍조와의 대화 이전에 성경적 진리에서 찾아야 함을 믿는다(롬 12:2). 성경은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번영, 더불어 살아가며



개인의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인간다운 삶의 길을 보여 주고 있다. 동시에 창조질서의 왜곡과 인간의 존엄을 훼손할 수 있는 일체의 성적 타락을 경계하고 있다. 교회는 남녀의 성적 결합에 근거한 성경적 결혼제도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있다. 동시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로서 치유와 포용의 대상이 되어야 할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총회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창조질서의 원리에 따라 보편적이고 공적인 성문화의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동성애에 대한 본 총회의 입장을 지금까지 발표한 입장의 연속선상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 1.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입장

첫째,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제도 안에서 성적 결합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며 번성하고, 부부간의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을 창조원리로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창조하셨고(창 1:27), 이성애에 바탕을 둔 가정을 이루고(창 2:24), 자녀를 생산하여 이 땅에 차고 번성하는 것(창 1:28)을 창조의 질서로 삼으셨다. 남녀의 성적 결합은 오직 합법적인 결혼관계 안에서만 일어나야 한다. 이 원리는 가부장적 시대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원리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창조원리이다. 복잡해진 시대 상황 속에서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러한 가정형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것은 보편적인 원리가 된다. 구약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성경에서도 동성애를 창조원리에 어긋나는 행위로 규정한다(롬 1:27). 동성애는 가정이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다는 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차고 변성하는 원리를 이루지 못한다.

**둘째,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선포하며 동성 간의 성관계를 금하고 있다.**

성경은 이성애에 기초한 합법적인 부부의 범위를 넘어선 동성애를 금하고 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레 18:22).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레 20:13). 동성애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는 관습들이었지만, 거룩하게 살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대를 초월하여 금지된 행위였다. 이러한 동성애에 대한 금지는 문화적 상대주의의 주장을 넘어 개인과 공동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편적 기본질서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동성애는 “~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와 같은 표현을 동반하는 근친상간의 죄(레 18:6-18)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음란한 죄(레 18:19-23)에 속하는 죄로 여겨진다. 신약성경에서도 남색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불의한 죄악으로 여겼고(고전 6:9), 심각하고 무거운 죄의 목록

에 두었다(딤펢전 1:10).

**셋째, 성경은 동성애를 윤리적 죄로 간주하고, 선천적 혹은 후천적 성적 취향에 대하여 묻지 않으며, 다만 행동 자체를 죄로 선포하고 있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가 제의적인 죄로서 현대에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레위기 1~16장에서 언급되는 죄들은 인간이 책임을 지지 않고 목욕이나 제사를 통해 회복되는 제의적으로 부정한 죄로 본다. 그러나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나오는 죄들은 제의적인 죄일 뿐 아니라 윤리적인 죄로서 인간이 주체적으로 피흘린 죄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죄이다. 즉, 성경은 레위기 18장과 28장에 포함된 동성애를 가증하다고 말하면서, 책임을 동반하고 자신의 생명으로 책임져야 하며 땅으로부터 토해지는 형벌을 치러야 하는(레 18:28) 윤리적인 죄에 속한 것으로 말한다.

또한 동성애는 가나안의 제의에서 공적인 역할을 했던 남창제도에서 시작하여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끼치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존재해 왔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종교개혁이 실시될 때마다 동성애는 개혁의 대상으로 다루어져 왔다(신 23:17-18; 왕상 14:24, 15:12, 22:46, 왕하 23:7). 성경은 동성애의 선천적 혹은 후천적 성적 취향에 대

하여 묻거나 판단하지 않으며, 다만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종류의 동성애적 행동에 대하여 죄로 선포하고 있다.



---

## 2. 동성애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

---

우리는 동성애가 기독교의 가치에 어긋나는 죄임을 믿기에 동성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과 치유의 길로 들어서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은 동성애자들을 향한 우리들의 태도에 하나의 지침을 제시한다.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고자 했던 군중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 8:7)고 말씀하셨다.

간음한 여인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는 먼저 자신을 살필 것을(마 7:3-5),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동성애를 정죄하기 이전에 그보다 더 큰 성적인 죄악 앞에 둔감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참된 변화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죄인을 향해 인

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의 진정한 참회와 변화를 이끌기 위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 준다(벧전 4:8-9).

또한 간음한 여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는 죄인과 대화하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보여 준다. 이 사랑의 행위가 결국 여인을 변화시켰다. 성경은 죄인 스스로가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골 18:30-32). 죄의 일깨움은 죄인을 향한 권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인격적 존중과 사랑을 통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소망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 이러한 길은 예수의 길을 본받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딤후 1:5-7).

**첫째, 우리는 동성애자를 정죄하기에 앞서 그들의 구원과 치유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동성애자를 포함한 그 누구도 차별과 배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동시에 우리는 동성애자의 변화의 과정에는 인내가 필요함을 인식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동성애자가 처한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이들을 목회적 차원에서 교회 안으로 포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돌봄과 섬김으로 함께해

야 한다.

**둘째, 우리는 건강한 가정문화의 정착과 성경적 성문화 형성을 추구한다.**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영적이며 육적인 연합인 결혼을 하나님의 창조질서 속에 순결한 삶을 살도록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의 계약으로 이해한다. 우리는 오늘날 사회의 다양한 성적 타락과 방종으로 인해 가정과 건전한 삶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며, 바람직한 성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세상에 만연한 개인주의와 세속주의의 물결이 건전한 성문화를 왜곡하는 현실을 직시하며, 이러한 성문화의 관행화, 제도화 및 법제화를 경계한다.**

우리는 부적절한 성문화가 초래하는 육체적·정신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적인 부담과 공동체의 가치훼손에 대한 우려를 직시한다. 따라서 동성애자를 포함한 일체의 왜곡된 성윤리의 당사자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는 일을 경계한다(딤후 3:2, 딤후 3:12, 딤후 2:22).

총회는 세상으로부터 제기되는 여러 질문과 도전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빛과 성경적 진리에 따라 대답을 제시하고 공동체와 다음세대를 위한 문화형성의 길에 동참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인권의 존중과 자유의 실현에 대한 다양한 현대사조들의 요구와 주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된 인간가치의 배려와 실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한 회복과 치유를 통해 가능한 것이라고 믿는다.

성소수자에 대한 배려 역시, 그 참된 길은 작은 자를 존중하고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안에서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다(마 18:6; 마 18:12-14; 눅 15:3-7). 따라서 총회는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함과 동시에, 동성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대상으로 맞이하는 공동체임을 밝힌다.



## 나가는 말

우리 교단이 동성애에 반대하는 입장은 단호하고 분명하다. 우리는 동성간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동성애는 윤리적인 죄로 간주하며, 동성애자를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는다. 동성애를 단순히 성적 취향의 문제로 보지 않고, 동성애의 행위를 비롯한 성적인 타락 일체를 죄로 간주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은 성적으로 순결한 부부가 창조원리에 따라 자녀를 낳아서 기르며 번성하는 터전이다.

동성애 문제가 한국사회에서 갈수록 복잡하게 전개되는 까닭에 우리는 다음세대를 복음에 기초해서 바르게 지도하기에 힘쓴다. 더불어서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으며 동성애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동성애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다.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동성애 문제를



연구하며 대처해 나갈 것이다. 전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동성애 문제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이해하고 교회와 세상 앞에서 동성애에 대하여 올바르게 건전하게 판단하기에 힘써야 한다. 그 길이 곧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윤리와 도덕을 온전하게 세우는 길이다.





## 동성애 관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입장

발행일 2018년 7월 2일

주소 03128 / 서울 종로구 대학로3길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전화 02)741-4381

홈페이지 [www.pck.or.kr](http://www.pck.or.kr)

역은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대사회문제(동성애)대책위원회

위원장 고만호 목사

서기 권용식 목사

회계 김관기 장로

위원 김수읍 목사 김학수 목사 박중근 목사

이운수 목사 이형식 목사 최충원 목사

전문위원 곽재욱 목사 주승중 목사

집필위원 곽재욱 목사 박보경 교수 배정훈 교수 이상은 교수 (가나다 순)

